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산재사망

외주화된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정비업무. 120여 개가 넘는 역사 승강장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하청업체의 적은 인원이 관리해야 했다. 적은 인원에 작업시간과 이동시간까지 촉박했기 때문에 위험업무에서 지켜져야 할 2인1조 근무 원칙은 지킬 수 없었다. 구의역 김군 역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한다. 구의역 산재사망 전인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스크린 도어 산재사망이 있었지만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앞선 사고에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다.

[발생일]

2016년 5월 28일

[피해]

김군 사망(당시 19세)

[처벌]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

벌금형 1천만원



ST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발생일]
2018년 1월 3일

[피해]
장민순 노동자 사망

[처벌]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인터넷 강의 업체 ST유니타스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웹디자이너 장민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의 과도한 업무량, 높은 직무 스트레스,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일방적 업무지시와 일터 괴롭힘 등이 원인이었다. 고인의 언니가 동생 사망 전 수차례 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당시 ST유니타스는 사과 대신 오히려 고인의 우울증을 문제 삼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년이 지난 지금, ST유니타스는 체계 없는 인사노무관리, 포괄임금제 유지, 주 60~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등 노동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대표적 과로 관련 정신질환 진료 직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발생일]
2020년 10월 현재까지

[피해]
택배 노동자 15명 사망

올해만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택배 물동량이 지난 7월 기준, 작년보다 4,328만 개가 늘어나 업무량이 증대하고 노동시간도 길어졌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대형 택배회사는 물류 증가로 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살인적인 노동강도, 공짜노동(분류작업)에 대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이자 하청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해 산재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다. 택배회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을 이용, 과로사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할 뿐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사망



[발생일]
2020년 4월 29일

[피해]
38명 사망, 10명 부상

[처벌]
현재 기소 상태

한익스프레스가 발주한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설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우레탄 폼 마감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 40명이 목숨을 잃은 2008년 (주)코리아2000의 이천 냉동창고 산재사망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의 후과였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행하면 안 되는 동시 작업 진행, 소통이 불가능한 다단계 하도급, 안전관리재 부재 등 사고원인도 판박이었다. 지난 7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법인 건우가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일]
2007년 3월 6일
황유미 사망으로 알려짐

[피해]
사망 199명
질병 696명
(2020년 7월 2일 반올림
제보 기준)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유출 사고에 삼성과 책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하급관리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인과관계가 명백한 사고에도 가벼운 처벌만 있는 상황에서, 직업병 관련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세정작업을 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유가족의 문제 제기 뒤 수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지만 삼성은 오랜 세월 책임을 회피했다.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 덕분에 이제 71명의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았다.(10월 7일 기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조차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은폐하던 삼성의 바람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악되었고, 산재 입증의 어려움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알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삼척 삼표시멘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였던 A씨는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보수·점검하는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다. 위험작업이라 2인1조로 근무해야 했으나 삼표시멘트는 해당 라인에 비정규직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사전에 설비 전원 차단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삼표시멘트는 사고 이튿날 사고 발생 설비와 동일한 노후 설비를 노동부 태백지청 허가 아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가동시켰다. 그리고 단 두 달 만에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위험한 작업은 하청노동자에게 맡기면서 안전은 나 몰라라 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참사였다. 노동부의 무책임도 위험한 일터를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발생일]

2020년 5월 13일,
7월 31일

[피해]

하청노동자 사망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산재사망



[발생일]
2018년 12월 10일

[피해]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사망

[처벌]
현재 재판 진행 중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24세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씨는 홀로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운송설비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다. 2012 ~ 2016년 사이 발전소 안전사고 중 97%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났는데, 공공기관마저 비용절감을 이유로 업무 외주화로 위험 증대, 안전수칙 무시에 무리한 업무를 떠맡겼기 때문이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발전소의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원청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책임자 14명은 사고 발생 1년 8개월이 지난 10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어느 날,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연주공장 내 크레인 수리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고온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 노동자 박모 씨는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하청의 하청 노동자였다. 그는 홀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일했다. 당시 현장의 온도는 43도. 30m 상공에서 홀로 일하는 그에게는 옆에서 지켜봐 줄 동료도, 잠시 휴식을 취할 휴게공간도, 안전수칙을 알려준 사람도, 현장 책임자도 없었다. 작은 생수 한 병만이 있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06년 이후 38명이 산재사망한 사업장이지만 원청 사업주는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발생일]

2020년 6월 9일

[피해]

노동자 박모씨 사망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1974년 창사 이래 사망한 노동자 수 467명, 올해만 벌써 5명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잇따른 중대재해로 8일간 부산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에게 실적을 채우기 위한 ‘빨리빨리’ 노동은 강요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이윤과 실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험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피해]

**창사이래 467명 사망,
2020년 5명 사망**

[처벌]

**하급관리자만 처벌,
벌금 수준 1500만원**



광주 조선우드 김재순 산재사망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던 김재순 씨는 폐기물 처리 업체 조선우드(전남 광주)에서 파쇄기에 낀 폐기물 제거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2인1조 작업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현장관리자도 없었다. 조선우드는 6년 전, 파쇄기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업장으로 노동환경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추가 관리 감독이나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

[발생일]

2020년 5월 22일

[피해]

김재순 사망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이민호군 사망



[발생일]
2017년 11월 9일

[피해]
19세 이민호군 사망

[처벌]
(주)제이크리에션
벌금형 2000만원,
대표 집행유예 3년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다니던 이민호 군은 제주의 음료공장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중 오작동을 일으킨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오작동된 기계의 오류를 제거하려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던 이민호 군의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었다. 기계 주변에는 안전장치도, 사고시 울려야 할 비상벨도 없었다. 위험한 작업임에도 위험시 상황을 관리해야 할 관리자도 없었다. 교육 과정으로 일을 배우러 갔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열악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장실습생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일터 괴롭힘으로 자살한 씨제이(CJ)제일제당의 진천 육가공 공장 현장실습생 김동준(2015년),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2017년) 사망 뒤에도 ‘열악한 노동현장’이 있었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충돌 산재사망

노동자의 휴일인 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 무너지면서 크레인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31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사고 트라우마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사고당시 수사당국과 노동청은 물론 1심 재판에서 사고 원인을 현장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하지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원활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했던 작업환경, 총괄 신호수 부재, 크레인 관리 이원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무시해 발생한 구조적 참사였다. 그날, 삼성중공업에 출근한 노동자 총 1623명 중 90%(1464명)가 비정규직였다. 위험과 책임은 하청노동자에게, 이윤은 철저하게 재벌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사법부가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발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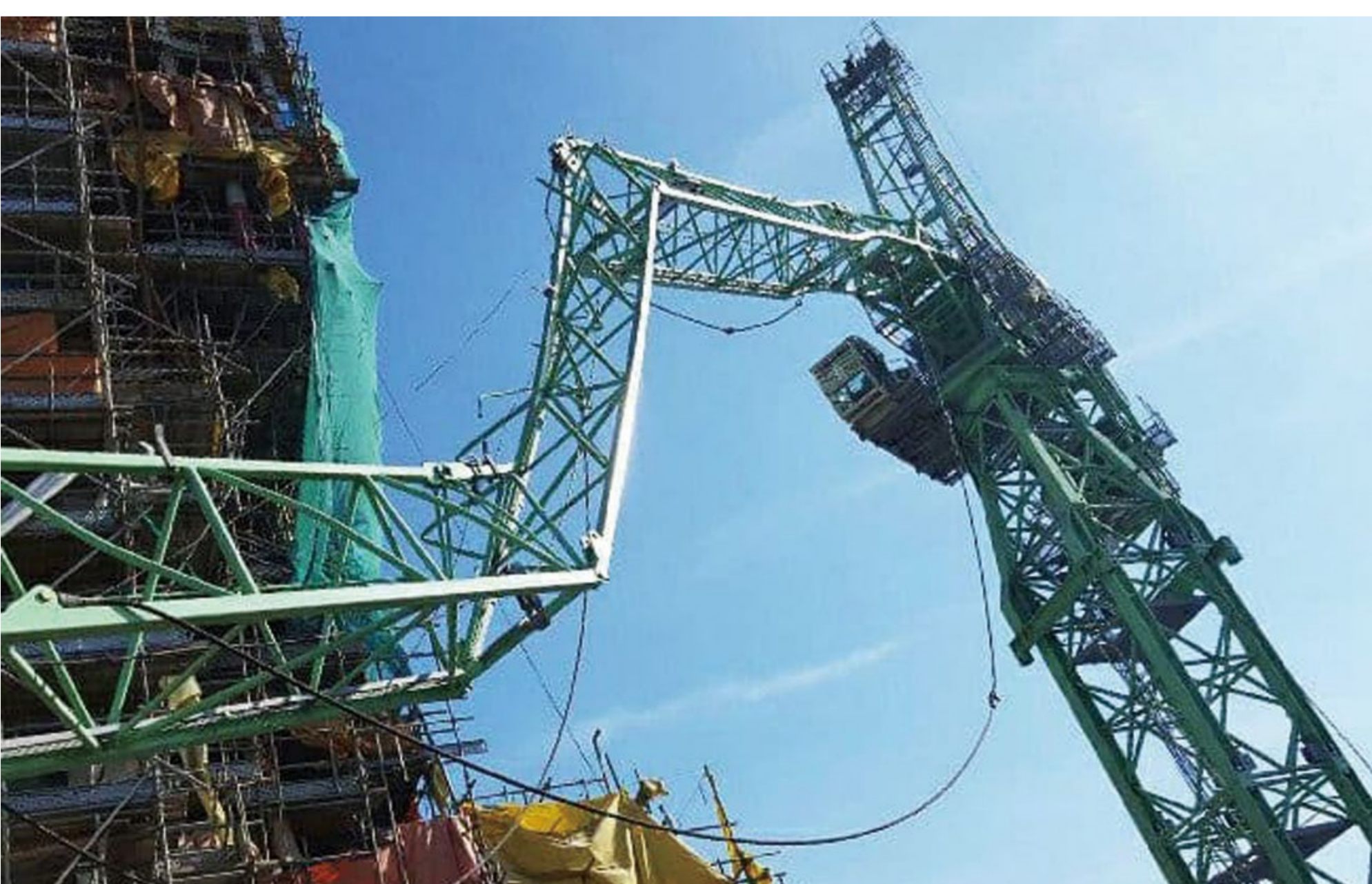
2017년 5월 1일

[피해]

**하청노동자 6명 사망,
25명 부상**

[처벌]

법인 삼성중공업 무죄



부산 포스코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산재사망

101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포스코건설의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는 신축현장. 유리외벽 부착과정에서 55층으로 올리던 안전작업 발판 붕괴로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했다. 엘시티는 다단계 하청으로 업체간 소통이 어려운 현장이었지만 원청의 총괄 안전관리자는 부재했다. 안전에 투자할 비용은 다른 곳에 쓰였다. 공사장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시공사 포스코건설 등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1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해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산재사망 다발 업체지만 산재사망 관련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받은 적은 없다.

[발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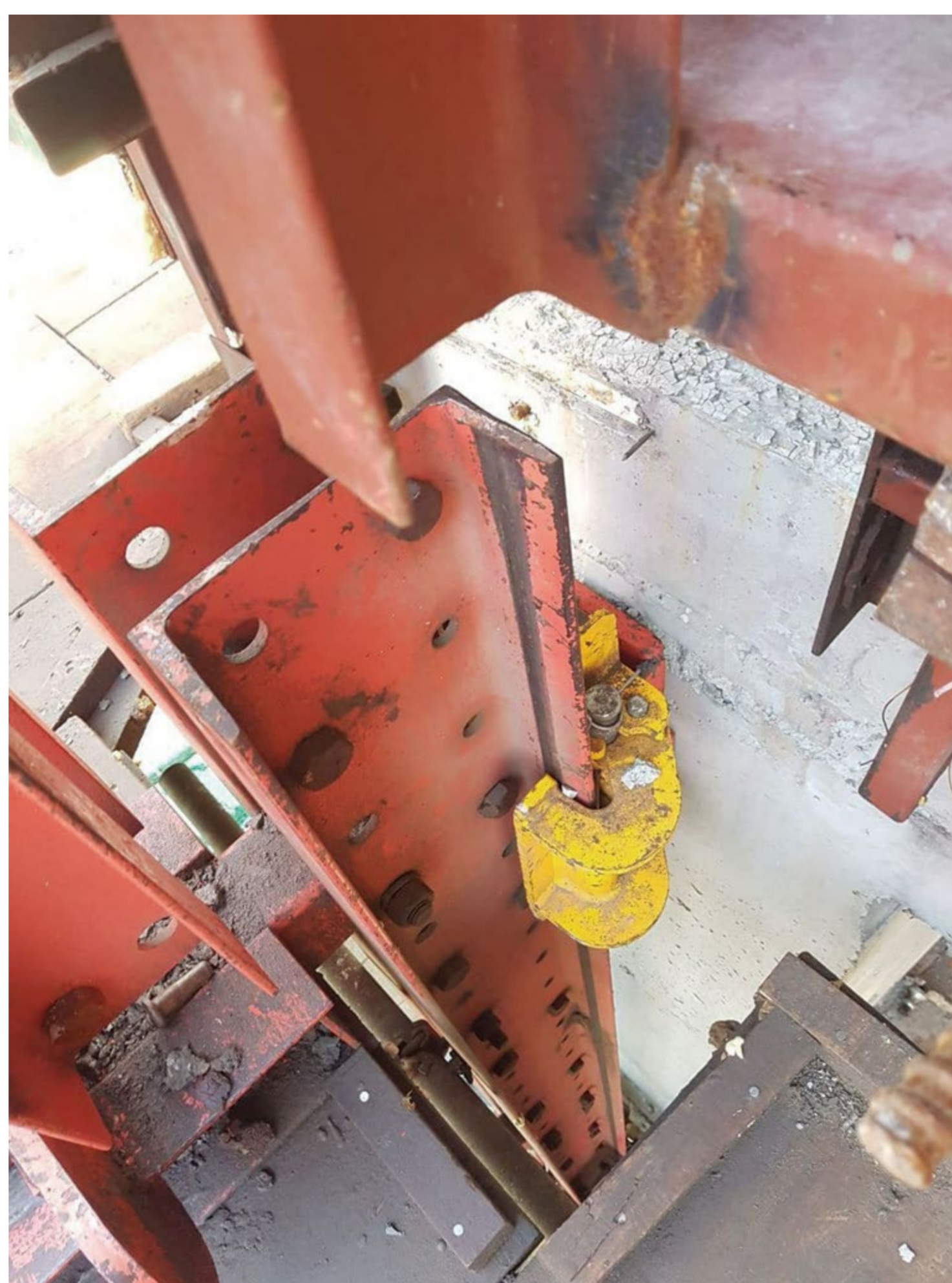
2018년 3월 2일

[피해]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처벌]

노동청 공무원
집행유예 2년,
하청업체 벌금형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 정차 중인 1079열차 1호차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같은 시간, 반대편 선로로 들어온 1080열차에 불이 옮겨지면서 역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부실 자재로 제작된 전동차, 화재 예방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철 역사, 불충분한 소방장비, 형식적인 방재관리계획서, 소홀한 안전교육 및 훈련 등 비용 절감을 우선한 공공교통시설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발생시킨 사회적 참사였다.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참사였지만 책임은 기관사 등 몇몇 개인에게만 전가되었다.

[발생일]

2003년 2월 18일

[피해]

192명 사망, 146명 부상

[처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무죄, 법인 벌금 1천만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일]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

[피해]
피해 신청자 6892명,
1553명 사망.

[처벌]
존 리 전 옥시RB
대표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죄

가습기 위생관리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이 폐손상 증후군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사건으로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2년 2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인산염, PGH의 독성이 확인되었다.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는 살균제 개발 전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4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유공(현 SK케미칼)이 환경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살균제 원료인 PHMG가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만 4천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일]

2014년 4월 16일

[피해]

304명 사망, 142명 부상

[처벌]

청해진해운 벌금
1000만원,
대표 징역 7년,
해경 123명 징역
징역 3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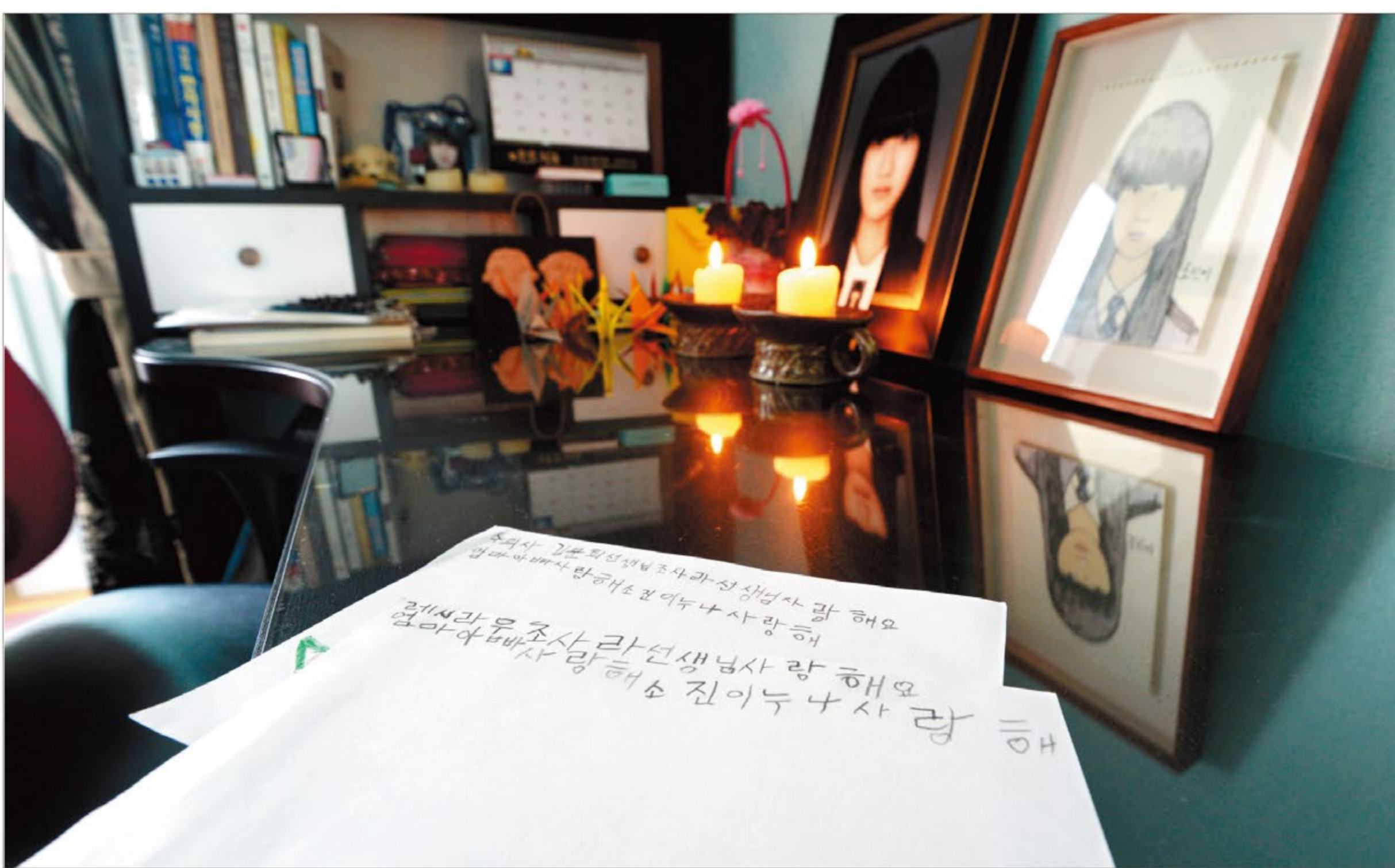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인천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 침몰해 승선객 476명 중 304명이(단원고 250여명) 사망한 참사이다. 6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침몰원인과 함께 왜 적극적인 구조가 없었는지, 당시 국정원은 사고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으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주요 요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등이다.



소진이, 주희, 한솔이는 안산 단원고 2학년 10반 친구들이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소중한 꿈을 키우던 방은 주인을 잃은 채 남아 있었다.

세월

간다 해도



“소진 누나 사랑해, 돌아와”

이소진은 일찍 출근하는 엄마를 대신해 피동갑남동생을 고박교박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등교했다. 친구들이 “동생 때문에 너의 인생은 없다”고 할 정도로 동생을 보살폈다. 소진의 방 책상 위에는 소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초를 켜 놓고 딸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6살 남동생은 엄마를 즐라 종이학을 만들어 누나 사진 앞에 놓았다. 글씨를 삐뚤삐뚤 쓰기 시작한 어린 동생은 어린이집에서 ‘소진이 누나 사랑해’를 수시로 써 온다고 했다. 소진의 중학교 친구들이 소진의 사진을 안고 다정하게 기념 촬영한 사진을 보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소진은 이 작은 방에서 유치원 교사의 꿈을 키웠다.

그리움

잊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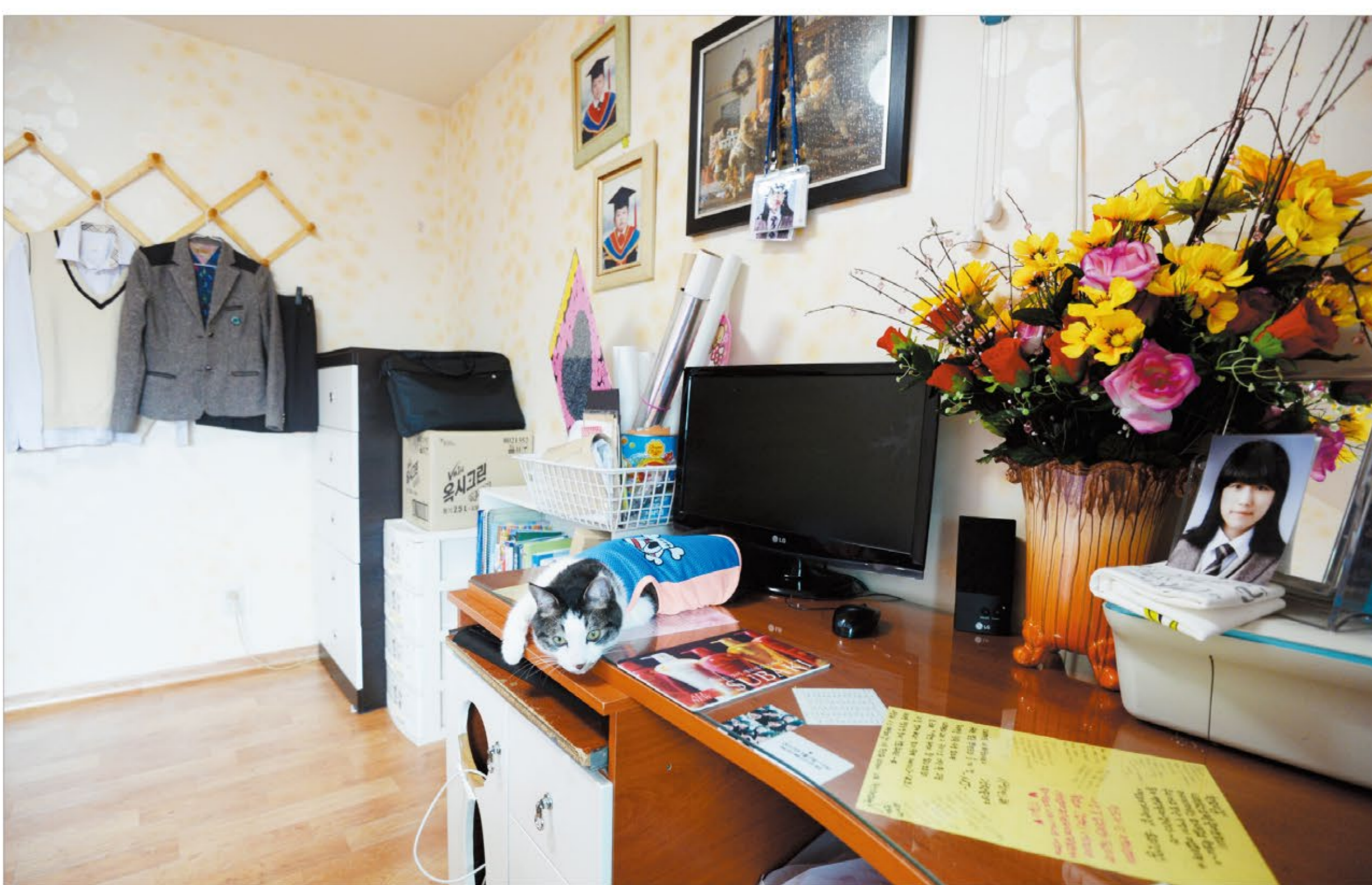


주희의 버릴 수 없는 흔적들

김주희는 ‘마마걸’이라 불렸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수시로 전화하고 일찍 귀가하는 착실한 외동딸이었다. “우리 주희는 과학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지었어요.” 다재다능한 주희는 엄마의 든든한 자랑이었다. 엄마는 딸의 방을 지우지 않았다. 주희의 미술 작품과 그림, 과학경연대회 출품 모형 자동차, 수학 참고서 등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였다. 의자에는 체육복이 걸려 있었다. 엄마는 작은 메모까지 딸의 모든 흔적을 모아 간직했다. 상장을 모은 스크랩북 속에 엄마의 이름을 한자로 반복해 쓰고 ‘엄마 사랑해’라고 알록달록 그려 넣은 연습장을 보여주며 엄마는 울었다. 주희는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지만 엄마 고생을 덜어주려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다.

기억

할게 너희들께



아직 한솔이 기다리는 고양이

강한솔의 방 책상 위에는 고양이 ‘라운’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2년 전 한솔이가 데려와 키웠다. 한솔이 앞에 늘 그 자세로 있었다고 했다. 한쪽 벽에는 한솔이의 이름이 새겨진 교복이 걸려 있었다. 한솔이 엄마는 49세 때 옷가지들 모두 태웠지만 교복은 태울 수 없었다. “우리 아이는 욕심이 많은 노력파였어요. 공부도 운동도 잘했어요.” 금세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살기 바빠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다. “대학병원 간호사가 돼서 돈 모아 큰 집 사 줄게, 엄마.” 아무진 딸의 꿈이었다. 한솔이의 친구들이 휴대전화에서 보여준 한솔이의 사진 앨범을 넘겨보던 엄마는 “아직 실감이 안 난다”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사진·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일]
2014년 2월 17일

[피해]
사망 10명

[처벌]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 불기소,
원청 무죄, 현장소장
징역 1년 6월 등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 외국어대 신입생 500여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던 중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며 학생 9명, 이벤트 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한 참사였다. 체육관 신축을 서두르기 위한 설계 및 시공 불량, 사고 당일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제설작업 미조치 등이 원인이었다. 더 많은 단체 투숙객 유치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던 코오롱그룹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있었으나 이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발생일]
2017년 3월 31일

[피해]
22명 실종

[처벌]
선사 (주)폴라리스 쉬핑 법인
벌금형 1500만원

선사 (주)폴라리스 쉬핑은 개조한 노후선박인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위해 운항을 감행했다. 그 결과는 남대서양에서 참담한 선박 침몰로 이어졌고 탑승인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되었다.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뒤에는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다르지 않은 재난참사였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내린 재판 또한 참사 재발을 조장하는 판결로 솜방망이 처벌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매해 하루 7명,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온 나라에서
퇴근하지 못합니다

